

근대 아동한복 연구

Korean Traditional Children's Clothes in Modern Times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조효숙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최은수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

Professor : Cho, Hyo Sook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Curator : Choi, Eun So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평상 복식 |
| II. 출생 의례복 | V. 결론 및 제언 |
| III. 명절 복식 | 참고문헌 |

<Abstract>

Korean children's clothes have unique aesthetic characteristics distinguished from other countries'. Our folk beliefs handed down from ancient times always contained fortune-seeking thoughts and particularly mothers' earnest wishes for the happiness of their children were sublimated into the symbolic beauty of their children's clothes.

The present study examined children's clothes in the royal family and among the people for 50 years of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modern times, by classifying them into ritual dress for newborn babies, festival dress and everyday dress. Male children's clothes included caps such as Bokgeon(복건), Hogeon(호건) and Gulle(굴레) topcoats such as Durumagi(두루마기), Sagyusam(사구삼) Koija(쾌자) and Jeonbok(전복) and others such as Magoja(마고자), Baeja(배자), Joggi(조끼) and Bajijeogori(바지저고리), Female children's clothes included caps and head ornaments such as Gulle, Jobawi(조바위) and Daenggi(댕기) and others such as Durumagi, Jegori and Chima(치마).

What is interesting is that old clothes handed down to the present are mostly boys' and few of them are girls'. This is probably because of the strong preference for boys rather than girls that continued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Ordinary people dressed their new-born babies with simple white clothes until Samchilil (the 21st day) or Baekil (the 100thday) but, for these occasions, the royal family prepared clothes as formal as those for the 1st birthday among the public. Rainbow-striped garments were more popular among the public than in the royal family. As rainbow colors were known to Korean people to dispel evil power and bring in fortunes, rainbow-striped garments were essential for the 1st birthday and festive days. However, they were seldom used in ordinarytimes, and most boys and girls wore plain jackets and plain topcoats.

When children's clothes in noble families were compared with royal family's ones, either handed down to the present or found in old literature,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basic composition of everyday dres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Andong Kim's family had dressed their children with very formal dress such as Dopo and Sagyusam.

Among children's clothes, the most gorgeous one was that worn on the 1st birthday, and those for other occasions or festive days were similar or simpler. Colors, patterns and designs used in decorating children's clothes mostly had the meanings of seeking fortunes for children such as long life, wealth and prosperity.

주제어(Key Words): 삼칠일(Samchilil), 백일(Baekil), 돌(the 1st birthday), 색동옷(Rainbow-striped garments), 명절 (festive days)

I. 서론

우리나라 어린이 복식은 다른 나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미적 특징을 갖고 있다. 예로부터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고 장수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어린이옷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표현하였다. 그렇기에 이러한 어린이옷에는 행복이 갖고 있는 여러 미적 가치 중 '상징의 미'가 가장 잘 표현되고, 어머니의 정성어린 손끝으로 한 땀 한 땀 지어낸 전통 아동복 속에는 좋은 의미를 지닌 동식물의 형태를 아름답게 재구성하여 장식하였음은 물론 색상의 선택이나 바느질 방법까지에도 심오한 의미가 내포되어 현대인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품이 되었다.

그러나 아동복에 관한 문헌자료가 많지 않고, 실물자료도 개화기 이후의 근대복식에 국한되어 있어 현재까지 한국 복식 학계에서는 아동복을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6년 『한국민속 종합 조사 보고서』는 남한 6도 16개 지역의 의생활을 조사한 것으로 신생아와 아동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1999년 『조선후기 궁중복식』은 비록 아동복만 별도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마지막 왕실 어린이옷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2000년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에서 '어린이 복식 특별전'과 함께 『한국 전통어린이 복식』을 출간하고, 아동복 패션쇼를 통하여 어린이 옷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시도되었다. 2003년에는 17세기 말기의 어린이 복식이 처음으로 미라와 함께 출토되어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이 출간되었다. 2005년에는 경운박물관에서 개화기 이후 반세기 동안의 전통 문화를 소중히 간직해온 안동김씨, 여흥민씨, 임천조씨, 파평

윤씨 집안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입혀졌던 '옛 어린이 옷 그 소중한 어여쁨' 전시회와 함께 도록이 출간되어, 좀더 다양한 아동복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경운박물관에서 전시한 20세기 전반기의 양반 집안 어린이 옷 유물과 현재 남아있는 근대 어린이옷 사진자료들, 조선말기 왕실의 어린이 복식 유물 및 『불교』에 기록된 왕실 복식 문헌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II단원에서는 20세기 전기 출생의례복을 왕실과 반가를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20세기 전기에 일반가정에서 입혀졌던 아동복 중 III단원에서는 명절복을, IV단원에서는 평상복을 남아 옷과 여아 옷으로 구분하여 차이점을 밝히고 변화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출생 의례복

1. 출생과 삼칠일옷

아기가 태어났을 때 공통적으로 입혔던 옷은 배냇저고리였다. 배냇저고리를 입히는 시기는 정해진 것은 아니나, 1600년에 쓴 오희문의 『쇄미록(瑣尾錄)』에는 "오늘이 곧 새로 난 아이의 3일이니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오희문 저, 이민수 역, 1990)라고 하였으며 최남선의 『조선상식(朝鮮常識)』에는 "초 칠일을 '한날혜'라 하여 이날에 쌀깃[襪]를 벗기고 깃 없는 옷을 입히고 동여매었던 팔 하나를 클러 주며..."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아 처음 태어났을 때 몸에 바람이 드는 것을 막고 허전하지 않도록 강보에 싸두었으며 지방에 따라 3-7일 후에 배냇저고리를 입히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민속 종합 조사 보고서』에는, 태어나서 3일까지는 쌀 포대기나 아버지 갈증이(제주도)같이 허름한 것으로 싸두었다가 3일이 되는 날부터 배냇저고리를 입히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남한의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20세기 전기의 유물로 남아있는 배냇저고리의 일반적인 형태는 저고리의 길이는 23~26cm정도이며, 소매는 길고 깃과 셔를 달지 않았으며 고름도 몸에 배기지 않도록 실고름을 길게 달아주었다. 실고름은 실용적인 목적 이외에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아기의 수명이 실처럼 길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다. 특히 함경도 지방에서는 아기가 80세까지 수명장수하기를 바라면서 80가닥으로 달아주기도 하였다. 옷감은 신생아의 맨살에 직접 닿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백색의 고운 무명으로 하지만 부유한 가정에서는 명주를 겹감으로 하고 안에는 용이나 모달리(毛織)를 넣은 것도 있으며, 집안에 따라 장수한 노인의 옷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렇듯 정해진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제주도에서는 적삼형태의 ‘뽕뒤 창옷’을 만들어 입혔는데, 남아는 긴소매로 여아는 반소매로 하였다. 마을에서 무병장수하고 복덕이 있는 노인에게 속옷을 만들어 드렸다가 뜯어서 아기옷을 해 입히기도 하였다. 이 옷은 타인에게 주면 복과 운을 빼앗킨다고 하여 잠시 빌려줄 수는 있으나, 양도하지는 않았으며, 운수가 좋은 옷이므로 군에 입대하거나 시험 보러갈 때, 국회의원 출마시에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353-355). 계절에 상관없이 삼베로 만드는 것은 피부병을 예방해주고 거칠거칠한 느낌으로 인내심과 신체를 단련시키는 강인성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국립제주 박물관, 2002: 10). 경운박물관에 전시된 20세기 초의 배냇저고리는 거즈와 같은 얇은 소창으로 만든 개량형 저고리도 있고(경운박물관, 2005: 58), 앞이 막히고 뒤가 트인 서양식 배내옷도 전시되었던 바 있어 이미 서양의복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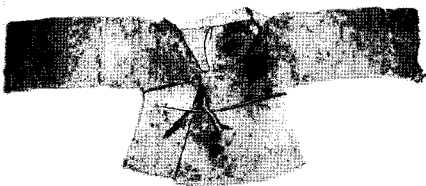
현존하는 유물 중 가장 오래된 배냇저고리는 <그림 1>에서 보이는 17세기 후반의 묘로 추정하는 양주의 해평윤씨 아기 미이라 묘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는 명주를 2겹으로 하여 앞이 길고 뒤가 짧아 누워 있기에 편하게 만들었다. 고대 부분에만 깃이 달려있고, 겹깃과 안깃이 없이 앞에서 여며 입

게 하였다. 양쪽 옆선에 1.5cm의 트임을 주었고, 소매길이가 길어 손을 가릴 수 있게 하였으며 고운 홉질로 바느질 한 후 외곽선을 상침하여 장식하였다(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박물관, 2002: 286-287). 이 저고리에는 폭 2.3cm, 길이 35cm가 되는 형깊 고름이 옷에서 떼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의 형태로 보아 배냇저고리의 형태가 조선시대에도 정형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조선상식(朝鮮常識)』의 기록과 같이 개화기에 통용된 깃 없는 저고리에 실고름을 다는 풍습도 17세기 후반 이후에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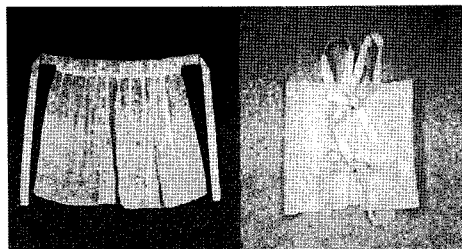
배냇저고리 외에 복부를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남녀아기 모두 두렁치마를 입히는데 간단히 두렁이라고도 하였다. 입히는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조선상식(朝鮮常識)』에는 “이칠일은 ‘두널혜’라 하여 깃 있는 옷 위에 두렁이를 입히고 한쪽 팔을 마저 풀어주며 활개를 다 놀리게 하며 삼칠일애야 비로소 저고리와 바지의 구양(具樣)한 의복을 입혔다.”(최남선, 4280: 47)고 한 기록으로 보아 두렁치마는 14일이 지난 다음에 입혔고, 형태를 제대로 갖춘 저고리는 세이레가 되는 삼칠일에 대문을 열고 인줄을 푼 다음 입혔음을 알 수 있다. 두렁이는 일반적으로 소재의 명주나 고운 무명 3폭을 잇고 양옆에 사다리꼴의 무를 달아 만드는데 어른의 치마와 같이 허리를 달아 주며 길이는 40~50cm정도이나 폭은 일정하지 않아 100~150cm정도이다. 흥미로운 것은 개량형 조끼허리가 달린 여성 치마가 유행 될 때는 두렁치마에도 개량형 어깨허리를 달아 준 것이 있다(경운박물관, 2005: 60). 현존하는 두렁이 유물들은 대부분 고운 무명을 누벼서 만든 것이나, 여름 용은 모시로 만들기도 하였다. 제주도의 배두렁이는 몸체는 삼베로 하고 끈은 명주를 달아 주었으며, 형태도 <그림 2>의 오른쪽과 같이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19세기 말기부터 20세초기까지 100여 년간 왕실을 비롯하여 궁중의 소요물품목록을 적은 『별기』에 왕실 복식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아기의 삼칠일이 되면 왕실에서는 민간에서 옷을 입히는 것과 달리 색이 있는 저고리와 바지 외에 머리에 쓰는 굴레와 덧옷으로 입는 배자까지 입혔음을 알 수 있다.

광무 원년(1897) 영왕의 탄일 5일 전에 쓴 「정유 시월 십오



<그림 1> 17세기 후기 배냇저고리 『남아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그림 2> 일반 두렁치마와 제주도 배두렁이 『옛어린 이웃 그 소중한 어여쁨』



<그림 3> 굴레를 쓴 우왕자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 황자 아기시 삼칠일 의복하은 불기)에 따르면 삼칠일 아기의 굴레는 아청색 갑사로 만들고 정수리에 옥관을 달았으며 배자는 양남색 별문숙사와 인화문 숙사로 만들었다고 한다. 저고리는 분홍색, 두록색, 옥색 등 연한색의 수화주나 화주와 같은 명주 종류로 장만하였는데 3벌 중 2벌은 누비이다. 바지는 저고리와는 달리 모두 백색으로 하였으며, 2벌은 누비바지이다. 배를 가리는 두렁이와 버선인 오목이는 옥양목으로 하였으며 두렁이는 누벼주었다. <그림 3>은 고종의 후궁이었던 보현당 소생의 우(摩)왕자가 몸도 제대로 가누기 전에 굴레를 쓰고 분홍저고리에 흰바지를 입고 오목이를 신고 있는 모습이다.

2. 백일옷

백일은 아기가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긴 것을 기념하는 날로 부모들은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조선상식(朝鮮常識)』에서는 백일이 되면 사망률이 높은 시기를 넘어설 뿐 아니라 아기도 사람을 반겨 바실방실 거릴 줄 알아 부모가 기쁜 마음을 표하는 잔치가 언제부터인지 생겨 행하여 왔다(최남선, 4280: 85-86)고 하였다.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색동옷을 입히기 시작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이때까지도 남녀 모두 백색의 저고리와 풍차바지 또는 깃을 작게 만든 저고리와 두렁치마를 입히기도 하였다(김정아, 2004: 48-52).

저고리 형태는 남아 여아의 구분 없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깃과 셔를 달고 긴 고름을 달아 뒤로 한바퀴 돌려 앞에서 묶어준다. 봄·가을·겨울에는 고운 무명이나 명주를 누벼서 만들고 여름에는 향라나 고운 모시를 다듬어 겹으로 만들었다. 자손이 귀한 집안에서는 백세까지 장수하기를 바라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 백 줄을 누빈 저고리나 백조각의 천을 이어서 만든 백쪽 저고리를 만들어 입혔다. 파평 윤씨 대의 백일 저고리는 연한 옥색 삼팔주를 백줄 누벼서 만든 것이다(경운박물관, 2005: 50).

그러나 왕실에서는 백일 옷 역시 일반인들과는 달리 다양한 색의 옷을 입히는데 복건·쾌자·주의·배자·저고리·바지·행전·오목이 등을 일습으로 갖추어 준비하였다. 광무2년(1898)에 쓴 「무술 사월 아기시 백일 의복불기」에 의하면 복건은 아청색 인접문사로 만들고, 쾌자나 배자는 주로 밝은 남색인 양남색, 주의는 두록, 분홍색이다. 쾌자, 배자, 주의 옷감은 별문숙사·갑사·춘인문사·광사·인화문사 등 모두 얇은 사 종류로 만들었는데 이는 백일이 봄철이었기 때문이다. 저고리는 분홍, 두록, 옥색으로 하며 사(紗) 종류 보다는 장원주나 수화주와 같은 명주(明紬)로 만들었고, 겹바느질이나 누비바느질로 하였다. 바지는 다른 옷과는 달리 모두 백색이며 수화주·정주와 같은 명주나 옥양목·서양사와 같은 면직물로 만들었다. 의복을 입는 순서는 바지와 저고리

<표 1> 왕실의 삼칠일과 백일 옷 비교

삼칠일 의복			구분	백일 의복		
황자 아기시			작장자	아기시		
정유 십월 십오일(1897. 10. 15.)			연도	무술 사월 (1898. 4)		
명칭	색	옷감	종류	명칭	색	옷감
색단굴레	아청	갑사 / 옥관	쓰개류	복건	아청	인접문사 / 옥관, 석용황
-	-	-	포류	쾌자 동다리잔누비주의 쾌자 단주의	양남 두록 양남 분홍	별문숙사 갑사 / 다홍갑사전대 춘인문사 광사 / 다홍광사전대
배자	양남	별문숙사 인화문사	배자류	잔누비배자 배자	양남 초록	갑사 인화문사
누비저고리 누비저고리 민저고리	분홍 두록 옥	수화주 수화주 화주	저고리류	누비저고리 동다리누비저고리 겹저고리 겹저고리 민저고리	분홍 두록 두록 옥 옥	장원주 장원주 수화주 광사 장원주
누비바지 누비민바지 민바지	백 - -	정주 서양사 서양사	바지류	누비바지 쟁겹바지 누비바지 민바지	백 백 -	수화주 정주 옥양목 서양사
누비두렁이 오목이 누비천의 누비요	- - 초록 -	옥양목 - 수화주 서양목	기타	행전 - 오목이 누비천의 누비요	- - 두록 -	세저포 - 수화주 -

를 입고 그 위에 주의와 쾌자를 입으며 대홍색 갑사로 만든 전대를 일습으로 갖추었으며 오목이 버선을 신고 바지에는 행전을 띠었다.

〈표 1〉은 왕실의 삼칠일 의복과 백일 의복을 비교한 것으로 「무술 사월 아기사 백일 의복불기」와 「정유 사월 십오일 황자 아기사 삼칠일 의복하은 불기」의 차이점은 백일 의복에는 쓰개로 굴레 대신에 복건을 준비하였고 쾌자와 주의 등의 포류가 추가되었으며, 또한 삼칠일에는 오목이 버선만 준비되었으나 백일이 되면 걷지는 못해도 행전 1쌍을 상징적으로 준비하였다. 따라서 백일에는 좀 더 격식을 갖춘 의복 일습을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돌 옷

돌은 출생 1주년이 되는 날로 일 년간 아기가 건강하게 자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떤 출생의례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 첫돌 의례에는 정성껏 준비한 돌 옷을 입고 돌상(床)을 차려 돌잡이를 한다. 1614년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는 아기를 낳은 지 한 달이 되면 새 옷을 만들어 입히고 단장시킨다고 하였으니 돌 옷을 만들어 입히는 전통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첫돌 의례에 입히는 복식은 삼칠일이나 백일 옷에 비하여 종류가 많고 색도 다양해져 남아와 여아 의복이 확연히 구분되고, 장수와 부귀를 기원하는 십장생이나 모란꽃과 같은 길상식물이나 동물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수를 놓거나 장식하였다. 또한 색상에서도 간색(間色)을 지양하고 정색(正色)에 해당하는 선명한 색상을 예쁘게 구성하여 어린아이의 단순하고 천진한 모습과 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그 중 돌 옷을 대표하는 색동은 오방색 중에서 검은색을 제외한 홍·황·청 백색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분홍색이나 자주, 초록색을 한두 개 더 넣어 음양오행사상의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시각적으로도 아롱진 무지개를 연상시켜 즐거움과 희망을 느끼게 하므로 어린아이 옷에 애용되었다.

돌 옷 일습을 이루는 의복의 종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가정에서는 〈그림 4〉에서와 같이 남자아기는 머리에 호건이나 복건을 쓰며, 옥색 저고리에 보라색 풍차바지를 입고 그 위에 색동소매를 단 까치두루마기와 전복을 입었다. 가슴 부분에 돌띠를 묶어 오냥 주머니나 액을 막는 궤불을 달아주며 타래버선과 갓신을 신는다.

‘옛 어린이옷 그 소중한 어여쁨’ 전시에 참여한 안동김씨, 여흥민씨, 임천조씨, 파평윤씨의 네 집안 아동복 중에 돌 옷이 수 점 있었는데 민저고리에 풍차바지, 분홍색 민두루마기나 색동소매를 단 오방장두루마기, 전복 등이 있었다. 서울 토박이인 풍향조씨 집안에는 1937년생의 돌 사진과 의복들이 남아 있는데 〈그림 5〉와 같이 바지저고리에 분홍색 민두루마기와 전복을 입고 복건을 썼다. 복건에는 수복, 나비 등의 금박을 찍고 중앙에 커다란 옥판을 달았다. 파평윤씨 집안의 1949년생이 돌 옷으로 입었던 옷은 분홍색 민두루마기에 남색 갑사로 만든 전복을 입고 홍색 술띠에는 두루주머니와 궤불을 달았다. 이처럼 의복을 갖추어 입혔던 양반 가정에서는 돌 복으로 대부분 민두루마기에 전복을 입고 복건을 씌웠으며 복건에 커다란 옥판을 달았다. 이러한 구성은 〈표 2〉의 1898년 「무술 구월 아기사 돌 생신 의복불기」에서 보이는 조선의 왕실 풍습과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81년 김홍도가 그린 〈그림 6〉의 모당 홍이상 평생도에서와 같이 조선 후기에는 돌을 맞이한 남자아기가 양반가의 자녀임에도 복건과 두루마기 없이 색동옷에 바지를 입었고 머리에는 굴레를 쓰고 있다. 또한 1920~50년대의 일반가정의 돌 옷 조사연구에 의하면 색동저고리와 풍차바지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때로는 색동저고리 대신 민저고리 위에 색동마고자를 입는 경우도 있었으며 두루마기 종류는 지극히 소수 층에서만 입혔다(김정아, 2004: 54-58). 1925년에 발간된 최초의 재봉 서적인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에도 색동저고리 짓는 법이 아동옷을 대표하여 설명될 정도로 색동저고리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입혀졌던 어



〈그림 4〉 남자아이 돌차림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생활과 풍속편-



〈그림 5〉 임천조씨 집안 1927년생 돌사진. 「옛 어린이옷 그 소중한 어여쁨」



〈그림 6〉 모당 홍이상 평생도에서 돌맞이 「조선시대 풍속화」



〈그림 7〉 여자아이 돌차림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속 생활과 풍속편-

린이 옷이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일반가정에서는 돌 옷으로는 조선 후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색동저고리를 많이 입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운박물관에서 전시한 임천조씨덕이나 파평윤씨덕의 돌 옷과 같이 분홍색 민두루마기에 양남색 쾌자를 입히는 습속은 조선말기 왕실이 무너지면서 민간들이 자유롭게 왕실의 착장법을 따라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 아이의 돌 옷은 일반적으로 색동저고리에 다홍치마, 노란색 단속곳을 입히는 것이 정형화 되었으며, 격식을 갖추는 집안에서는 <그림 7>과 같이 겹옷으로 색동소매를 단 까지 두루마기를 더 입고 조바위나 굴레를 씌워줬다. 이번 조사 대상인 네 집안 모두 남자 아이 옷만 남아 있고 여자 아이 옷은 남아 있지 않아 남녀의 복식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의 옷은 귀하게 여겨서 기념으로 두었는데 반해 딸의 옷은 내리 입혀 닳아 없어지는 등 보관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또한 여아는 돌잔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왕실의 돌 옷에 관하여는 영왕의 돌 옷이 기록된 1898년 「무술 구월 아기사 돌 생신 의복별기」와 1932년 12월 「의대 목록」(궁중유물전시관, 1999: 210)에 기록된 구(玖) 왕자의 돌 옷에 관한 기록으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이것을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의대목록」의 말미에 소화 7년 12월이라 적었으므로 「의대목록」은 1932년 12월에 첫돌을 맞은 영친왕의 둘째 아들 구(玖)왕자의 돌 옷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쓰개는 앞 중심에 옥판을 단 복건이 기록되었다. 동일한 형태의 쓰개가 왕실용은 고궁박물관에, 반가용은 경운박물관에 전시된 풍향조씨 집안의 유물에서 볼 수 있었다(경운박물관, 2005: 24). 복건은 아청색 인문사로 만들고 쾌자나 배자는 주로 밝은 남색인 양남색으로 하였고 둥근 원형무늬가 등성등성 있는 별문갑사나 숙갑사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흥

<표 2> 왕실의 돌옷

영왕			착장자 연 도	玖 왕자 (英王 2男)		
1898년 9월				1932년 12월		
명 칭	색	옷 감	종 류	명 칭	색	옷 감
-	-	-	쓰개류	공정척	-	-
복건	아청	인문사 / 옥판, 석옹황		복건	아청	별문단 / 부금
-	-	-	포류	용포 내작	자적 홍	도류단 운문숙사
사규삼	남송	숙갑사		사규삼 창의내작	초록 다홍	대화단 / 부금 대화단
쾌자	양남	별문갑사		쾌자	남	자손수 / 부금
잔누비주의	분홍	장원주		주의 접주의	화야 분홍	대화단 별문숙사
-	-	-	조끼류	조끼	남	자손수 / 부금
잔누비배자	양남	숙갑사	배자류	동배자	남송	색동 / 부금
잔누비동의복 동다리잔누비동의복 민동의복	분홍 두록 옥색	삼팔주 장원주 수화주	저고리류	동의대 누비동의대 -	분홍 남송길 다홍등	별문우이중 우이중 -
잔누비바지 잔누비바지 쟁민바지	백 백 백	삼팔주 서양사 삼팔주	바지류	바지 누비바지	백 백	숙수 별문우이중
-	-	-	규	규	-	백옥
-	-	-	대류	옥대 솔띠 전대 요대	- 분홍 다홍 남	백옥 - 대화단 / 부금 숙수
누비친의 행전 오목이	자적 - -	수화주 저포 -	기타	태사혜 허자(화자) 행전 수족전 수낭	- - 백 - 다홍	- - 세저 -

(수낭에는 순금커북 1개, 순금사자 1쌍, 순금고두쇠 1쌍, 순금전도방울1쌍, 순금귀볼 3개가 부착)

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왕실의 기록에는 민간에서 쓰는 호건이 없다. 호건은 벽사의 의미로 호랑이를 해학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민간용 쓰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의복은 바지 저고리 위에 사규삼을 입거나 민간에서 두루마기라 부르는 주의와 패자 일습을 입는다. 『불교』에 주의와 일습을 이루는 복식이 패자라 기록되었으나 왕실에 남아있는 유물은 것이 없는 전복과 동일하다. 따라서 둘을 맞이한 어린이의 옷으로 입혀지는 ‘전복’이라는 명칭은 원래 패자에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되며, 어린이 옷에서는 전복 보다는 패자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래 패자(快子)는 맞깃이 달려있는 것으로 전복과 구분되었으나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조관의 연거복이 주의와 전복으로 간소화되면서 전복형태가 일반화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아동복에서도 패자와 전복의 형태가 단일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말기 기록에서도 전복·패자·담호의 명칭이 구별 없이 사용되었다. 『문헌비고』에 오늘날 전복은 일명 작자 또는 담호라 한다고 하였으며, 1848년 『진찬의궤(進饌儀軌)』, 검기무복식(劍器舞服飾)에 등장하는 패자 설명에 복식도(服飾圖)에는 패자로, 악기풍물(樂器風物)에는 전복으로 혼용된 사례가 보인다(국립국악원 전통예술진흥회, 1989: 41, 141).

주의는 분홍색 장원주로 하여 곱게 누벼주었다. 저고리는 분홍·두록·옥색으로 하였으며 장원주·수화주·삼팔주 등의 명주 종류로 만들어 겹이나 누비바느질을 하였다. 저고리는 단색으로 한 민저고리 이 외에 동다리 저고리 즉 소매를 다른 색으로 한 저고리도 있었으나, 색동을 사용하지 않았다. 바지는 백일 옷과 같이 모두 백색이며 삼팔주와 서양사를 겹이나 잔누비 바느질을 하였다. 왕실의 둘 옷 목록에는 백일 옷의 일습에 비하여 남송색 속갑사로 만든 사규삼이 한 벌 더해졌고, 전기 시작하면서 펠리이는 바지통을 고정시키기 위한 모시 행전이 추가되었다.

구왕자의 둘 복에는 영왕의 둘 복에 비하여 관복용 복식인 공정책, 자적용포, 백옥대, 백옥규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관복을 제외하고 평복만을 비교해 보면 두 『불교』의 내용에 커다란 차이는 없으나, 두 건의 의복 명칭에서 당시 일반 가정의 어린이에게 유행되었던 옷이 왕실 복식에도 반영된 변화를 볼 수 있다. 첫째는 구왕자의 둘 복에 ‘죽기’라는 명칭이 보인다. 조끼는 1890년 문관복식이 양복으로 변화된 이래 서양조끼의 영향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둘째는 배자의 명칭인데 영왕의 『무술 구월 아기사 돌 생신 의복불교』에 ‘양남색 배자’로 기록되었으나, 구왕자의 기록에는 ‘남송색동부금동배자’라 하여 전과 다른 색동동배자로 표

현되었다. 이 옷은 <그림 8>과 같이 속대박물관에 남아있는 남송색 길에 금박 직힌 색동 소매를 한 마고자와 같은 형태로 추정된다(박성실, 2000: 142).

또한 조선말기 왕실기록과 반가의 유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아동 한복의 특징은 남자 어린이는 색동저고리를 입지 않았고 여자 어린이만 색동저고리를 입었다는 점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네 집안의 남자 어린이 저고리에 역시 소매를 색동으로 한 저고리는 한 점도 없었으며 연한 분홍이나 옥색의 민저고리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마고자나 두루마기 등의 겉옷에는 색동소매를 단 것이 많았다. 영의정을 지낸 안동김씨 집안 저고리에도 오방장두루마기와 같이 오방색으로 길과 깃, 셔를 꾸며준 저고리는 있으나(경운박물관, 2005: 12) 색동저고리는 없었다. 그러나 여자 어린이는 색동저고리가 많이 남아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불교』의 기록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색동의 기록은 1882년(고종 19)의 기록에서 처음 보인다. 『임오 빈궁마마사월팔일의디불교』에 순명효황후의 ‘식동소고의’가 기록되었으며, 한참 후인 1916년 덕혜옹주 5세 때인 『병진스월 아기사 의복불교』에도 색동저고리가 보인다. 그러나 순명효황후와 같은 해인 1882년(고종 19)의 『임오천만세동궁마마스월팔일의디불교』에서 순종의 의복에는 저고리 대신에 ‘배자·식동긴의디’ 즉 패자와 일습을 이룬 색동두루마기로 기록되었으며, 소화 7년 12월의 궁중 『의디목록』에는 ‘남송색동부금동배자’ 즉 색동마고자가 기록되었다.

그러한 이유는 여자 어린이는 치마 저고리차림도 겉옷이 될 수 있으나 남자 어린이는 맨 저고리바람이 아니고 대부분 그 위에 마고자나 두루마기를 덧입기 때문에 중요한 장식요소였던 색동을 속옷 보다는 겉옷에 활용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왕실 여자아기 둘 옷에 관하여 『불교』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 어떤 종류의 옷을 어떤 옷감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단지 김용숙의 『조선조 궁중 풍속 연구(朝鮮朝宮中風俗研究)』에 덕혜옹주의 둘 사진과 일본 문화여자 대학에 소장된 덕혜옹주의 유물들이 남아있다(석주선, 1991: 13-19). <그림 9>와 같이 덕혜옹주의 둘 사진에 나와 있는 옷



<그림 8> 색동마고자 『조선조 후기 궁중복식』



<그림 9> 덕혜옹주 둘 사진 『조선조 궁중 풍속연구』

을 보면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스란치마를 입고 가슴과 어깨에는 보를 붙인 당의를 입었다. 당의에는 수자를 부금 하였으며 고름에는 노리개를 달았다. 또한 덕혜옹주의 외동딸인 정혜옹주(1933년 8월 14일생)의 돌 옷으로 녹색부금 당의, 다홍색 스란치마, 색동두루마기, 분홍홍치마지, 분홍 민저고리, 노랑 단속곳, 타래버선 등이 남아 있다. 그러나 1916년 덕혜옹주의 네 돌 생일을 준비한 「늑 스월 아기시 의복불고」에 주의 1점, 저고리 종류가 5점, 치마 종류가 4점, 속옷 종류 8점을 준비하였고, 생일 옷으로 특별히 당의를 준비하지는 않았다. 이 외에 왕실 옹주들의 5, 6, 7세 생일 의복 「불고」에도 당의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왕실의 여자아이 들에는 의례용으로 머리에 화관을 쓰고 스란치마 저고리에 부금한 당의가 준비되었으나, 그 외의 생일에는 당의를 입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20세기 전반기 일반 가정의 출생의례복에서는 삼칠일과 백일까지는 바지저고리만을 입히는데 반하여 왕실에서는 굴레, 주의, 쾌자 등 일반 가정에서는 입지 않는 의복을 갖추어 입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출생의례복인 돌 옷에서는 왕실의 의복을 반가에서도 따라 입혀 왕실과 반가의 돌 옷 종류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개화기 이후 조선왕조가 붕괴되고 민간의 복식금제가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례복이나 돌 옷과 같은 특수복을 마련할 때 왕실의 복식제도를 따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반가 남자 아기들의 돌 옷에서만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여자 아기들의 돌 옷은 왕실과 달랐는데 당의를 입히지 않고 치마저고리에 굴레를 씌우거나 치마저고리 위에 색동두루마기를 덧입히는 정도였다.

Ⅲ. 명절 복식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어린이에게 새 옷을 장만하여 입히는 풍습이 있었다. 명절 옷이라 하여 특별한 격식이 있던 것은 아니고 첫돌 옷과 종류 및 구성이 유사하다. 남자 어린이는 바지저고리·조끼·마고자·두루마기·전복·복건 등의 옷을 입는다. 평상시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좋은 옷감의 옷을 입힐 수 없는 집안에서도 명절에는 비단옷을 장만하였다. 설날에는 주로 명주나 양단 소재를 쓰고 추석에는 숙고사·향라·순인과 같은 얇은 소재를 사용하였다. 바지와 저고리는 주로 분홍색·옥색·보라색·미색 등 연한 색으로 하였으며 여자의 치마저고리를 동일한 색으로 입히지 않는 것과 같이 남자의 바지저고리도 동일한 색으로 입히지 않았다.

『한국민속 종합 조사 보고서』에 경기도 안성에서는 명절



〈그림 10〉 설빔을 입은 아이들 「한국전통 어린이 복식」

에 남녀노소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고 어린이들은 설날이 되면 설빔이라 하여 때때옷을 입는데 때때옷이란 빛깔이 알록달록하여 고운 어린애의 옷을 말하며 색동저고리(까치저고리라고도 함)·까치두루마기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여아는 꽃고무신을 신고 염낭을 차며 남이는 귀주머니를 찻다. 강화에서는 설날이 되면 설빔이라 하여 새 옷을 차려 입는데 이를 때때옷이라 한다. 때때옷이란 색동저고리·까치두루마기 등에서 알록달록한 빛깔을 형용한 것으로 대체로 보름날까지 입는다. 설빔을 차려입고 여아는 염낭을 차며 남이는 귀주머니를 찻다는 내용이 있고, 다른 지역은 명절 옷이라 하여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인 형편과 사정에 따라 장만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돌 옷을 여유있게 만들어 3세 전후까지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24, 64).

근대 풍속을 알 수 있는 사진 자료들을 보면 명절용으로 는 색동옷이나 사구삼, 오방장두루마기 등 첫돌 옷과 같이 화려하게 장식한 옷을 많이 입었다. 〈그림 10〉은 '昭和12年元日'이라 인쇄된 1937년 1월 1일자 조선일보에 남녀어린이 6명이 설빔을 입고 있는 사진이다(박성실, 2000: 171). 남자 어린이 3명 중 둘은 사구삼을 입고 있으며 한명은 두루마기에 전복을 입고 있다. 머리에는 모두 금박을 한 복건을 쓰고 버선에 꽃신을 신고 있다. 여자 어린이는 색동저고리에 금박



〈그림 11〉 양반집 자녀 「민족의 사진첩」 민족의 전통편



〈그림 12〉 잔치에 참석한 아이들 「민족의 사진첩」 민족의 전통편



〈그림 13〉 아이들의 평상복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편



〈그림 14〉 조끼를 입은 아이들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편



〈그림 15〉 가족의 외출 『민족의 사진첩』 민족의 전통편

을 짝은 짧은 통치마를 입고 목이 긴 버선과 갓신을 신었으며 머리에는 금박을 짝은 조바위를 썼다. 이처럼 여자아이들은 색동저고리를 많이 입었는데 색동소매 뿐만 아니라 섶에도 색색의 천을 삼각형이나 직선으로 예쁘게 조합하여 바느질하였다. 치마의 길이가 짧은 통치를 입은 것은 당시 성인 한복에 개량 디자인이 유행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양반 집안의 남자 어린이 명절복에는 색동 저고리는 한 점도 없었으며, 연한 분홍이나 옥색의 민저고리가 대부분이었다. 조끼와 마고자의 전형적인 형태는 남색 숙고사나 모본단을 겹감으로 하고 안감은 진분홍을 대어 보색 대비의 미를 귀엽게 표현하였고 목둘레와 도련에 금박을 찍어 화려하게 꾸며준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규격은 정해지지 않은 듯 초록이나 옥색 조끼도 남아있고 색동소매의 까치두루마기와 마고자도 만들어 입혔다. 또한 안동김씨 집안의 옷 중에는 사구삼·청색 도포·여름용 녹색 홀두루마기·진분홍 홀두루마기·연두 겹두루마기·전복 등 다양한 종류의 포 류가 많이 남아있어 복식의 격식을 중요시 하는 양반 집안에서는 이때까지도 어린 아이에게 다양한 포를 입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11〉과 같이 특별한 집안의 어린이들은 신분과 권위를 표현하기 위한 복식을 갖춰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집안의 잔치에 참석할 때는 명절에 비하여 평범한 한복을 많이 입었다. 〈그림 12〉와 같이 잔치에 참석한 어린아이들이 색동소매를 단 까치두루마기 보다는 민두루마기를 입은 사진이 많이 남아있다.

IV. 평상복식

개항 이후 근대사회로 향하는 사회 전반의 커다란 흐름 속에 의생활의 양복화 경향이 서서히 이루어졌으나 이는 도시 상류층 일부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20세기 중반까지

도 여전히 한복을 애용하였다. 일반가정에서 어린이들은 첫돌이나 설날,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에 한복을 차려입는 것은 물론이며 가족의 결혼식, 졸업식과 같은 의례에도 대부분 한복을 입었으며 그밖에 일상 활동복으로도 한복을 많이 입었다.

1. 남아복

남자 어린이들의 평상복은 〈그림 13〉과 같이 바지와 저고리 차림이 대부분이며 1930년대부터는 성인 남자의 의복에 조끼가 유행하면서 어린이옷에도 〈그림 14〉와 같이 조끼를 입기 시작한다. 저고리는 대부분 무명이나 명주로 만들어 계절에 따라서 봄, 가을에는 겹저고리를 입고 겨울에는 누비저고리나 솜저고리를 입으며 여름에는 홀저고리를 입는다. 조끼는 외출복으로는 남색의 숙고사나 모본단, 양단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평상 활동복으로는 실용성 때문에 회색이나 검정색 무명으로 만들어 입었다.

바지는 2-3세까지 풍차바지를 많이 입지만 4살 정도가 되면 풍차바지 대신 성인의 바지와 같으나 배래에 창구멍을 내어 용변이 편리하도록 만든 ‘개구멍바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입었다. 1925년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에도 개구멍바지는 3세부터 5세까지 입히는 것이라 하며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된 것으로 보아 그 무렵 많이 입었던 바지였음을 알 수 있다. 경운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에도 개구멍바지는 상당히 여러 점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도 전통형 개구멍바지 이외에 어깨 끈을 단 개량형 개구멍바지도 몇 점 나왔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의 어린이는 외출할 때에 〈그림 15〉와 같이 바지저고리 위에 민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이 보이는 하지만 흔한 모습은 아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짙은색 두루마기에 학생 모자를 썼다. 모자부터 신까지 전통 차림을 한 모습 보다는 〈그림 19〉에서와 같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두루마기를 입고 학생 모자를 쓴 경우가 많이 보인다.



〈그림 16〉 소학교에 입학 한 아이들 『민족의 사진첩, 민족의 전통』



〈그림 17〉 돌띠 저고리에 풍차바지를 입은 아이 『민족의 사진첩, 민족의 심장』



〈그림 18〉 긴 저고리 짧은 치마를 입은 아이들



〈그림 19〉 짧은 치마를 입은 아이 『사진으로 보는 이화유치원』

2. 여아복

여자 아이들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다. 여자 어린이 옷 형태는 성인 여자의 옷과 변천을 같이 하는데 〈그림 16〉은 이화학당의 소학교 입학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1900년대 초기까지도 짧은 저고리에 긴 치마를 입고 머리는 땅아 늘어 주거나 다홍댕기를 들인다. 그러나 여자아이이라도 나이가 어려서 용변을 가리기 전까지는 〈그림 17〉과 같이 허리까지 오는 긴 저고리에 풍차바지를 입었다. 1910년대부터는 이화학당이나 한성고등여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깨끈이 달린 통치마와 긴 저고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1920년대 후반부터는 어린 아이들도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고 치마가 짧아졌다(그림 18). 특히 1920년대는 짙은색의 통치마를 한층 줄여 충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이 유행하였다. 〈그림 19〉는 1921년 이화 유치원생들의 모습으로 짙은 색 치마를 단을 접어 짙막하게 입었다.

〈그림 20〉은 1930년대 이화유치원 유희시간으로 이때까지도 아이들은 치마저고리 혹은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는 길게 땅아 다홍 댕기를 들었다. 여자 어린이는 남자 어린이에 비해 두루마기 착용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방한용이나 부유한 집에서는 두루마기를 입었다.

현존하는 여자 어린이 옷 중 색동옷이 많이 남아있으나 이는 명절 등 특별한 용도의 저고리이고 사진들에서 확인되는 여자 어린이 평상복은 무명이나 명주로 만든 흰색, 분홍색 민저고리를 많이 입었다. 여자 어린이의 쓰개로는 조바위, 남바위와 굴레가 있으나 이런 것은 명절 옷이나 특별한

의례에 착용했을 뿐이며 평상시에는 다홍 댕기를 드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30대 중반부터는 이러한 전통쓰개나 댕기머리도 사라졌으며 한복을 입고도 대부분 짧은 단발머리로 바뀐다. 〈그림 21〉은 1937년 신명유치원 졸업사진으로 짧은 통치마와 저고리에 단발머리를 하였다.

어린이들이 평상복으로 한복을 입는 것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그림 22〉와 같이 1940년대부터는 한복을 입은 모습은 사라지고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서양식 옷을 입었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조선왕조 말기부터 근대로 이동하는 50여 년 간의 왕실 및 민간 어린이옷을 출생의례복, 명절복, 평상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린이옷의 종류로는 남자아이는 복건이나 호건·굴레의 쓰개류, 두루마기·사구삼·패자·전복 등의 포류, 마고자와 배자·조끼, 바지·저고리 등이 있으며, 여자 어린이는 굴레·조바위·댕기 등의 쓰개 및 수식류, 두루마기·저고리·치마 등이 있다.

‘옛 어린이옷 그 소중한 어여쁨’ 전시에 출품된 안동김씨, 임천조씨, 여흥민씨, 파평윤씨 집안의 어린이옷에서 확인되는 흥미로운 점은 모두 남자 어린이옷만 남아있을 뿐 여자 어린이옷은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다른 박물관의 소장품에도 여자 어린이 옷은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는 20세기까지도 강하게 남아있는 남아 선호사상을 입



〈그림 20〉 유치원 놀이시간 『사진으로 보는 이화유치원』



〈그림 21〉 단발머리 아이들 『서양인이 본 고려아』



〈그림 22〉 1942년 이화유치원 어린이들 『사진으로 보는 이화유치원』

증한다고 하겠다. 아마도 남아 옷만은 잘 만들어 소중하게 보관하였고 여아 옷은 간단히 만들어 평상시에도 입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가의 남자 어린이옷들을 현존하는 왕손복의 유물이나 『볼기』 등의 기록들과 비교해 볼 때 관복이 아닌 평상복에서는 기본적인 구성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특히 안동 김씨 집안에서는 도포나 사규삼과 같은 예복도 상당히 갖추어 입혔음을 알 수 있다.

민간에서는 대부분 삼칠일이나 백일까지는 백색의 간단한 옷을 입혔으나 왕실에서는 삼칠일이나 백일에도 민간의 돌 옷과 같이 격식을 갖추어 장만한 점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왕실에서는 색동옷에 대한 기록이 1882년 『볼기』에서 처음 확인되며 그 이전에는 색동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18세기에 그린 풍속화에도 색동옷을 입은 돌맞이 아이모습을 볼 수 있고 전세되는 색동옷의 유물도 민간의 것이 많은 점으로 미루어 왕실보다는 민간에서 색동옷이 더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색동은 우리 민족에게 사악함을 쫓고 기쁨을 전하는 대표적인 색으로 인식되어 돌이나 명절에 필수적이었다.

어린이의 특별한 날 옷 중에는 돌날 입는 옷이 가장 화려하게 치장되었으며 명절이나 다른 행사용 옷은 유사하거나 더 간소화 된 것이 많았다. 어린이 옷에 장식하는 색상이나 문양, 디자인 등은 모두 자녀가 수명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바람을 담은 길상무늬가 대부분이었다. 강한 원색의 조합이나 길상의 의미를 담은 동물 식물무늬를 활용할 때 자칫 유치해 지기 쉬우나 우리의 어린이옷에서는 어린이의 천진함과 어울려 기쁨을 전해줄 뿐 아니라 엄마의 간절한 소망과 정성이 깃들어 오히려 예술품에서나 볼 수 있는 상징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집안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나들이를 갈 때에는 명절에 비하여 평범한 민두루마기를 많이 입었으며, 평상시에는 민저고리에 바지 혹은 치마만 입은 경우가 많았다.

■ 참고문헌

- 경운박물관(2005), 옛 어린이옷 그 소중한 어여쁨, 58.
- 국립국악원 전통예술진흥회(1989), 進饗儀軌 戊申, 服飾圖 중 劍器舞服飾(41), 樂器風物(141).
- 국립제주 박물관(2002), 의복으로 본 제주의 삶. 제주의 삶 제주의 아름다움, 10.
- 궁중유물전시관(1999)편, 조선조후기 궁중복식(朝鮮朝後期宮中服飾), 210.
- 김숙당(1925), 朝鮮裁縫全書, 서울: 민속원, 90-92.
- 김용숙(1987), 조선조 궁중 풍속연구, 서울: 일지사.
- 김정아(2004), 1920-1950년대의 아동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48-52.
-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박물관(2002),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286-287.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86), 한국민속 종합조사 보고서, 경기도편, 24, 64.
- 박성실(2000), 전통 아기옷의 실증적 고찰, 한국 전통 어린이복식, 단국대학교박물관, 142.
- 석주선(1991), 일본 문화 여자대학 복식박물관 소장 덕혜옹주 유물소고, 한국복식(韓國服飾) 9,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 13-19.
- 오희문 저, 이민수 역(1990), 쇠미록(瑣尾錄), 1600년 5월 4일.
- 이수광(1614), 지봉유설(芝峯類說) 권17 인사부.
- 장서각편, 무술 구월 아기사 돌 생신 의복볼기, 고문서 집성(古文書集成)권12,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 장서각편, 무술 사월 아기사 백일 의복볼기,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권12,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 장서각편, 정유 시월 십오일 황자 아기사 삼칠일 의복하은 볼기,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권12,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 최남선(4280), 조선상식(朝鮮常識), 풍속편, 47.

(2006년 10월 26일 접수, 2006년 12월 11일 채택)